

당뇨병 치료 버섯요구르트 개발

당뇨병을 치료할수 있는 버섯요구르트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에 따르면 유전공학연구소의 벤처업체인 바이오허브(주)(대표이사 김범규)가 당뇨병환자를 위한 버섯요구르트를 개발하고 일본 메이지유업과 판매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바이오허브100’이라 불리는 버섯요구르트는 당뇨병환자들을 위한 혈당강화 고기능성 건강보조식품으로 천연버섯 추출물과 유용물질을 섞어 만든 유산균발효유로 국내·외에서 7건의 특허를 받았다. 특히 특허출원을 위한 실험결과 당뇨병환자의 약물치료와 혈당관리에 실질적인약리효과를 나타냈으며 국내 당뇨병환자들의 90%를 차지하는 인슐린의 비의존형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바이오허브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바이오허브측은 혈당수치와 인슐린주사 사용여부, 약 복용여부 등을 기준으로환자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맞는 제품을 판매해오고 있는데 일본메이지유업이 그 효능을 인정하고 판매계약을 제의해 왔다.

바이오허브는 경상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자 11명이 자본금 4억6천만원으로 이 대학 유전공학연구소내에 설립한 벤처업체로해조류를 이용한 항암과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저하 등 고기능성 다당체의 생산과이를통한 기능성식품의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바이오허브 관계자는 “본격적인 판매 이전 당뇨병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시험복용한 결과 큰 효과를 본 환자들이 많아 이 중 100여명이 정식복용계약을 맺었다” 며 음식물섭취에 제한이 많은 당뇨병환자들에게 좋은 식품이 돼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원하는 소음 막아주는 “침묵기계” 등장

귀를 찢을 것 같은 공사장 드릴 소리나 나이트클럽의 강렬한 비트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나왔다.

뉴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영국 요크셔 허드슨 필드대학의 엔지니어인 셀윈 라이트는 소음에서 나오는 음파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와 정확히 반대 의 상을 갖고 주파수는 동일한 음을 발생시켜서 소음을 없애주는 침묵기계(Silence Machine)를 만들고 특허를 출원했다. 라이트의 침묵기계 에 앞서 비행기의 소음소거 헤드폰 등 소음을 막아주는 제품이 이미 상용화되기는 했지만 원치 않는 소음만을 선별적으로 막아주는 제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침묵기계는 소음 샘플링을 위한 마이크로폰, 반소음을 만들어내는 컴퓨터, 반소음을 발생하는 악성기 등으로 이뤄지며 소음과 반소음 파가 상쇄되는 범위는 악성기의 숫자와 위치에 따라 변하게 된다. 라이트는 “산업용 침묵기계는 이미 상용화가 완료됐다”며 “산업용과 가정용 침묵기계의 가격은 각각 1만파운드와 1000파운드 정도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의 침묵기계는 착암기, 드릴 등의 소음과 같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음을 소거하기 위해 개발됐다. 그는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소음도 제거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품도 개발중이다.

출처 전자신문

발특 2002/5